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15학번 이산해라고 합니다.

주제소개

저희는 한국의 은밀한 인종 차별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국내거주 외국인 현황, 인종차별의 통념과 실태, 은밀한 인종차별, 실천 팁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목차소개

먼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한국거주 외국인 현황

2013년도에 약 150만 명이었던 국내거주 외국인은 매년 10만 명 이상 증가하여 2017년 기준으로 2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의 추세라면 2021년에는 약 300만 명의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합니다.

1.2 국적별 체류 외국인 현황

이번에는 국적별 외국인에 대한 통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다시피 그래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중국인입니다. 약 46.7%의 국내거주 외국인이 중국인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대다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의 동남아 국가이며 이 중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을 꾸리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 한국인이 생각하는 인종차별

그렇다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인종이란 ‘신체적 특징의 차이로 구분한 집단’이 아닌 ‘신체적 특징에 기초에 사회적으로 규정된 집단’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오해를 하고 인종차별 또한 이런 오해가 눈덩어리처럼 커져서 발생합니다.

2.2 한국인이 생각하는 인종차별(뉴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인종차별이 없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뉴스에서 인종차별은 축구 경기에서 서양 선수들이 동양인을 향해 눈을 찢는 행위를 한다거나, 흑인에게 비하 발언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 또는 외국에서 관광 중 또는 유학 중에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시민이나 학교에게 차별을 당했다는 뉴스는 어쩌다 한 번씩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중 매체에서는 보면 한국은 인종차별의 가해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보다는 피해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더 많은 듯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인종차별이 없는 편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2.3 외국인이 생각하는 국내 인종차별

하지만 2014년 무투마 루티에레 유엔 인종차별 특별 보고관은 한국을 공식 방문한 뒤 한국에는 관심을 뒤야 할 심각한 인종이 분명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이 오랫동안 인종/문화적 단일성을 유지해온 역사를 고려할 때 인종주의 및 외국인 혐오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과를 보여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을 제한적으로 해석 및 적용하는 점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서 인종차별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혐오 단체가 존재하며 이를 타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2.4 외국인이 생각하는 국내 인종차별(인종차별지수)

이 그림은 워싱턴 포스트에서 조사한 인종 차별 지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 옆집에 다른 인종이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파랑색에 가까울수록 인종 차별이 존재하지 않은 국가에 속하는 것이고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인종차별이 심한 국가에 속합니다. 한국에서는 30%이상의 응답자가 ’ 옆집에 다른 인종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2.5 한국 인종차별의 시작

그렇다면 이런 한국에서의 인종차별이나 혐오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보시죠. 먼저 다들 아시다시피 조선시대같이 과거의 대한민국에는 서양의 다른 인종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세기 개항기 시절 서양인의 인종주의가 전파되었고, 20세기에는 주한미군 내에서의 흑인 차별이 널리 퍼지고 이는 21세기의 백인 우월주의로 나타납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도 백인의식과 같이 다른 인종을 무시하는 유사 백인 의식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2.6 통념과 실태의 차이

앞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대중들은 국내의 인종차별이 심각하지 않다고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외국인들이 느끼는 인종차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어나는 차별들을 저희는 은밀한 인종차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3. 은밀한 인종차별

그렇다면 이러한 은밀한 인종차별은 어떠한 이유로 일어날까요? 저희는 이 원인을 크게 3가지 분류로 나누었습니다. 국가 인종주의, 제도적 인종주의 그리고 일상의 인종주의입니다. 여기서 인종주의란 사회적, 구조적 불평등을 생산하고 지속시키는 체계이며 역사적 과정입니다. 이 체계는 행위자 외부에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행위자들에 의해 만들어져 일상적으로 실천되고 경험됩니다.

3.1 국가 인종주의

먼저 국가 인종주의는 국가가 인종, 종교, 문화적 판단 기준을 통해 차별적인 기제를 만들어내고 소수자나 특정 인종에 삶에 관여하는 법을 만들어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특정 종족, 소수자 집단, 이민자 집단과 관련된 법이나 정책을 통해 영토 내부의 존재들을 구획하고 경계 지으며 차별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입니다. 가족과 함께 체류하는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귀화와 한국인과 결혼관계로 이어진 가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나라 출신의 가정과 서로 다른 나라의 두 사람이 결혼한 가족은 정책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일민족주의와 순혈주의, 민족국가로 구성된 대한민국이 사상적으로 생각지 못한 문제일 것입니다. 정부는 인종차별의 유형과 양상 등 인종차별의 실태를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3.2 제도적 인종주의

두 번째로 제도적 인종주의란 사회, 정치적 제도와 조직 안에서 표현되는 인종주의를 의미한다. 특정 조직의 일상적 실천이나 절차가 소수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명백하거나 은밀한 형태의 차별을 만들어내는 인종주의를 말합니다. 즉, 소수자를 배제하거나 착취하려는 의도를 가진 조직과 제도상의 규칙, 보상, 실천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이 사진은 JTBC의 차이나는 클라스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장면입니다. 이들은 이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테러리스트라는 오해를 사고 우간다에서 왔다는 이유로 경찰은 면허를 위조했다고 의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종교집단과 소수자들의 문화적 특징을 범죄나 치안의 절대적 요소로 치부한 행위 중의 하나입니다.

3.3 일상의 인종주의

마지막으로 일상의 인종주의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은밀한 인종차별에 해당됩니다. 흔히 흑인들을 친근하게 부른다는 의미로 ’흑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르는 사람은 친근하게 부른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흑인들의 신체적 능력이나 특성을 치켜세웠다고 해서 칭찬이 아니라 차별적 표현입니다. 엄연히 피부색을 강조한 것이니까요. 또한 한국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해서 초면에 반말을 하는 행위 또한 차별입니다.

3.3 일상의 인종주의2

다음은 ebs의 프로그램 다문화 고부열전과 JTBC의 비정상 회담입니다.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문화 고부열전은 결혼 이민자 여성과 한국인 시어머니의 갈등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결혼 이민자 여성과 한국인 남성 그리고 한국인 시어머니라는 가족관계 안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고부관계의 갈등을 소재로 이야기를 전개시키기 위해 거침없는 표현이 담긴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결혼이민자여성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습을 시어머니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포맷인데 대부분 동남아인인 결혼이민자여성의 친정을 어렵고 힘든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이 대중에게 인종주의를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3 일상의 인종주의3

대중매체는 일상에서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며 파급력이 큽니다. 이는 SNS를 통해 담론의 형성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따라서 대중 매체에서 인종주의가 전달된다면 인종주의는 사회에 더욱 더 깊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4. 실천팁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 일상에 존재하는 은밀한 인종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3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종차별 금지 캠페인 참여 및 홍보. 차별 없고 실질적인 법령 요구, 인식개선교육 앱과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4.1 인종차별 금지 캠페인 참여/홍보

첫 번째로 인종차별 금지 캠페인입니다. 1966년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 UN이 매년 3월 21을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로 지정했으며 당일에는 몇몇 단체들이 행사를 주최합니다. 이를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웹 사이트가 없어 홍보가 제대로 안되는데 우리라도 알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4.2 차별없고 실질적인 법령 요구

차별 없고 실질적인 법령에 대한 요구입니다. 먼저 다문화 가족 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다문화 가정이라고 제한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본인과 배우자 둘 중에 한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문화가정의 혜택을 받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국제결혼을 예정하고 있거나 이미 국제결혼을 한 내국인에게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서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가 7개 국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인중 하나여야 합니다. 국가가 제도적으로 특정 국가를 차별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책은 인종차별 철폐의 날 행사 참여에 일환으로 입법청원을 통한 차별이 없는 실질적인 법령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4.3 인식개선 웹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중매체의 파급력은 큽니다. 또한 요즘 스마트 기기가 대중화되면서 우리는 웹 사이트를 아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웹 사이트를 알아두신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주인권센터라는 단체의 홈페이지입니다. 이 단체는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의 평등과 권리를 지원하고 강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사람들이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4.4 인식개선 앱

마지막으로 요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이걸로 교육을 하면 어떨까 해서 관련 앱을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교육을 위해 저희가 이번 발표에 담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종차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이트를 몇 개 연결해주는 앱입니다. 현재는 인종차별 철폐의 날 행사, 인권 교육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민과 함께의 4개의 사이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는 이 정도로 사용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